



간호사의 특성과 노인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식에 관한 연구

고 정 미¹⁾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장기간에 걸쳐 인구 고령화가 진전되어 온 선진국들보다 노인인구 증가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00년에 이미 노인인구 수가 총인구의 7.2%가 되어 ‘고령화 사회’가 되었으며,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에, 그리고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노령화 지수(65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는 2016년 100.7에 달해 노인인구가 유년인구보다 많아질 것이 전망된다(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6).

노인의 증가는 만성질환의 증가, 일상생활 수행능력저하, 치매 등의 인지기능장애, 경제적 능력 저하 등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노인의 증가로 이어져 부양자의 부양부담을 증대시키게 된다(Jo, 2008). 우리 사회의 노인부양 문제는 전통사회에서처럼 가족이 대부분의 책임을 지는 수준을 넘어선 상태이지만, 사회 차원의 노인부양지원은 아직 시작단계에 있다. 따라서 여전히 전통적인 관념에 따라 자녀들이 노부모를 부양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으며, 자녀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거나 그들의 노부모 부양의 의식이 약화되었다는 등의 이유 때문에 노부모를 방치하거나 신체적, 정서적으로 위협하는 ‘노인학대’의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었다(Lee & Lee, 2007).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극히 꺼려하는 문화적

특성과 효를 중시하는 가치관으로 인해 서구사회에 비해 노인학대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02). 그러나 최근에 노인학대와 관련된 사건들이 이전에 비해 빈번하게 언론 등을 통하여 사회적 이슈로 논의되면서 노인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사회 차원에서 인식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진지한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다.

서구사회에서는 1980년대부터 노인학대의 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학계나 정부에서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의 본질을 탐색하고자 노력해 왔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노인학대의 심각성이 사회문제화 되었으며, 관련 연구 또한 이때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Lee, 2005). 정부 차원에서도 노인학대에 대하여 본격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2004년 1월에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Yoo & Kim, 2004). 개정된 노인복지법 제39조 6항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어, 간호사들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법적·전문가적 책임을 갖게 되었다.

노인학대(elder abuse)를 언급하는 용어로는 학대(abuse), 유기(abandonment), 방임(neglect), 자기방임(self-neglect), 부당한 처우(maltreatment or mistreatment), 착취(exploitation)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용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학대’가 사용된다. 노인학대는 복잡한 현상으로 이루어지고 각 사회의 문화 및 가치관을 반영하여 정의되며, 시간에 따라서도 변화

주요어 : 노인학대, 인식, 간호사

* 이 논문은 2007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성신여자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교신저자 E-mail: cmklee@sungshin.ac.kr)

접수일: 2009년 11월 30일 1차 수정일: 2010년 2월 1일 2차 수정일: 2010년 2월 10일 게재확정일: 2010년 2월 17일

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Kim, Kwon, Lim, & Lee,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학자들 사이에 논의되는 노인학대의 정의에 대한 내용들을 개괄하면 그 일반적인 범주와 의미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합의된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 노인학대에는 의도적인 괴롭힘과 혹독한 대우와 같은 적극적인 행위는 물론이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노인을 보살피지 않거나, 의도하지 않았지만 보살핌을 받아야 할 노인을 결과적으로 방치하는 소극적인 행위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Lee, 2005)). 그리고 학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노인학대로 합의되는 구체적 유형은 신체적 학대, 심리/정서적 학대, 재정적 학대 및 방임 등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학대를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연구에 따라 학대에 대한 정의에 차이가 있어 노인학대가 발생하는 빈도는 다양하게 보고되지만, 2007년도에 65세 이상 노인 2,325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전국 노인학대 실태 조사에 따르면, 그 이전 연도의 노인학대 발생률이 6.0%로 보고된 바 있다(Jo, 2008).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의 2008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노인학대 사례수가 2005년 2,038건에서 2007년 2,312건, 2008년 2,36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신고 접수된 노인학대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가 42.4%로 가장 많으며, 방임이 23.0%, 신체적 학대가 17.8%, 노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의 재정적 학대가 16.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2009). 또한 학대피해노인들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학대피해노인은 일반노인보다 우울 증가 및 자아 존중감 감소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살에 대한 생각 또한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Lee, 2005). 노인학대를 당할 경우 타 질환의 증가, 기능적 장애, 인지적 기능의 손상 및 악화 등의 증상도 나타날 수 있으며, 시설에 조기수용되거나 조기 사망에 이르기도 쉬워, 궁극적으로 피해당사자들의 삶의 질과 안녕감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Choi & Mayer, 2000).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노인학대의 인식에 대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검토해 보면, 연구대상자로 일반성인(Lee & Lee, 2000), 일반노인(Yoo & Kim, 2004), 학대피해노인(Lee & Lee, 2007), 사회복지사(Seo, 2000) 등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으며 노인학대에 관한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수행된 바 있다(Bang, 2009; Jung, 2007). 그러나 간호사들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법적 전문가적 역할이 기대되는 현 시점에서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간호사들은 병원 및 지역사회 최일선에서 직접적으로 노인대상자들을 접촉할 수 있으므로 노인학대를 목격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단이다(Song, 2007). 병원 간호사들은 입원에서부터 퇴원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노인대상자를 관찰하므로 잠재적 노인학대 상황의 신호를 발견하여 예방을 위한 중재를 할 수 있고, 실질적 노인학대가 발견된 경우 이에 대처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Mandiracioglu, Govsa, Celikli, & Yildirim, 2006). 또한 퇴원 시에 지역사회 간호사들에게 의뢰하여 노인학대의 예방과 중재가 지역사회에서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간호사는 노인학대신고의무자로서의 법적책임과 동시에 예방과 중재의 전문가적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는 무엇보다도 학대 사례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실제 학대 사례에 직면했을 때 상황에 대한 판단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는 노인학대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Killick & Taylor, 2009). 학대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전문가들이 학대 사례에 직면하여 상황을 판단할 때, 전문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Bang, 2009; Jung, 2007), 학대관련 정보접촉 및 교육경험(Bang, 2009; Jung, 2007; McCredie, Bennett, Gilthorpe, Houghton, & Tinker, 2000), 학대에 대한 법적 지식(Oswald, Jogerst, Daly, & Bentler, 2005), 노인에 대한 태도(Bergeron, 1999)를 포함하는 전문가의 특성이 학대에 대한 판단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재정적, 성적 학대 및 방임의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간호사의 특성과 노인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식정도의 관계를 파악하고 궁극적으로 간호사들이 노인학대 상황을 더욱 정확하게 판단하고, 학대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의 특성과 노인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식정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노인학대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심각성 인식정도를 파악하고, 학대 유형별 심각성 인식정도를 기술한다.
-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식정도를 파악한다.
- 노인학대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심각성 인식정도와 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의 특성과 노인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식 정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횡단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에 위치한 5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301명의 간호사로 비확률적 표출법으로 편의 추출되었다. 연구대상 선정기준은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이다.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08년 5월 10일부터 6월 30일 까지 5개의 종합병원에서 실시되었다. 각 병원 간호부장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연구자가 병동에 설문지를 배부하고 수집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연구자가 참여를 원하는 병동 수간호사에게 의뢰하여 연구 참여 동의서를 포함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각 병원에 70부씩 총 350부를 배부하고 1주일 후에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324부로 회수율은 92%이었다. 이 중 답변 내용이 부실한 자료는 제외하고 30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한 대상자에 한하여 수집되었다. 연구 참여 동의서에는 연구목적, 대상자의 익명성, 비밀보장, 연구 참여의 자발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용어 정의

● 노인학대

본 연구에서는 노인학대를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부양자에 의해 행해지는, 노인에게 해나 장애를 가져오는 행동 및 행위의 결핍’으로 정의한다(Lee, 2005). 본 연구에 포함되는 노인학대 유형은 신체적, 정서적, 재정적, 성적학대 및 방임으로 규정한다(Yoo & Kim, 2004). 구체적으로 신체적 학대는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등을 유발시키는 힘에 의한 학대이며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적·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 고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적 학대는 노인의 자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성적학대는 노인에게 성적수치심을 자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Lee, 2005). 방임은 노인의 의식주 문제해결, 의료처치 제공 등과 같은 부양자로

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이나 비의도적으로 박탈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Lee, 2005).

● 노인학대 관련 법적 지식

노인학대 관련 법적 지식정도는 노인복지법 내용 중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와 절차, 벌칙규정 및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업무에 관한 인지정도를 의미한다(Jung, 2007).

● 노인에 대한 태도

태도는 어떤 주어진 대상이나 생각 또는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말한다(Fishbein & Ajzen, 1975).

연구 도구

● 노인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식

본 연구는 노인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식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Moon과 Williams (1993)가 개발하였으며 Yoo와 Kim (2004)이 번역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한 사례들을 사용하였다. Moon과 Williams (1993)는 미국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의 인식에 있어서 인종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작성된 13개의 가상적인 노인학대 사례를 사용하였다. Yoo와 Kim (2004)은 한국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Moon과 Williams (1993)가 개발한 13개의 사례 가운데 노인학대로 보기에는 한국인의 정서에 적절하지 않는 1개의 사례(재정적 학대와 관련된 사례로 남편이 부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부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12개의 사례를 사용하였다. Yoo와 Kim (2004)은 영문사례를 국문으로 번역하고 영어 이름 대신에 한글의 성을 사용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본 연구는 Yoo와 Kim (2004)의 연구에 사용된 12개의 사례를 사용하였으며, 12개의 사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재정적 학대, 성적 학대 및 방임의 5개 영역으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12개의 사례 중 신체적 학대 영역 사례가 3건, 정서적 학대 영역 사례가 4건, 재정적 학대영역 사례가 2건, 성적 학대 영역 사례가 1건, 방임 영역 사례가 2건 이다. 각 사례에 대한 응답은 ‘학대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심한 학대이다’ 5점의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12개 문항에 대한 평균점수 및 각 영역별 평균점수를 사용하였다. 이는 12개의 노인학대 사례를 제시하고 각각의 사례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는지 측정하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를 심각하게 인식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 도구는 가상적인 노인학대 상황이 제시된 사례들로 구성되어있다(예, 사례 1: 김씨 할아버지는 75세로 건강이 좋지 않고 이동이 자유스

렵지 않다. 그러나 그는 남의 도움없이 혼자 힘으로 걷고자 노력하고 있다. 마침내 침대와 휠체어를 혼자 이용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해보고자 노력하지만 허사였다. 혼자 힘으로 침대에서 일어나기를 시도하다가 방바닥에 얼굴을 부딪친 경험도 몇 번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는 병원이나 요양원 시설에 가기를 거부하고 있다. 그는 장남과 함께 살고 있는 데, 부인도 직장생활을 하고 슬하에 있는 2남 1녀의 자녀를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장남은 자기와 부인이 하루 24시간 아버지를 돌볼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들과 며느리는 아침에 아버지를 침대 또는 휠체어에 묶어 놓고 출근을 한다. 이와 같이 제시된 사례에는 학대 피해자인 노인과 부양자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고, 행위의 경중 및 행위가 발생된 배경과 같은 상황변수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학대 행위에 대한 설명에 국한된 노인학대 도구들보다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노인학대 사례를 판단해야 하는 전문가들의 인식을 측정하는데 유효하다(Bang, 2009). Yoo와 Kim (2004)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77이었고,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Bang (2009)의 연구에서는 신뢰도(Cronbach's α)는 .81로 조사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1이었다.

● 노인학대 관련 교육경험

노인학대 관련 교육경험은 “노인학대 관련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라는 1문항의 질문에 ‘예’, ‘아니오’로 답하게 하여 측정하였다.

● 노인학대 관련 정보접촉 정도

노인학대에 대한 정보접촉 정도는 “지난 1년 동안 노인학대 관련 언론보도를 얼마나 자주 접했습니까?” 라는 1문항의 질문에 Likert 5점 척도로서 답하게 하여 측정하였다 (1=‘전혀 접하지 않았다’, 5=‘매우 많이 접했다’).

● 노인학대 관련 법적 지식

노인학대 관련 법적 지식정도는 Jung (2007)의 도구를 사용하였고,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와 절차, 벌칙규정 및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업무에 관한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 범주는 ‘그렇다’, ‘아니다’, ‘잘모름’ 의 세 가지로 제시하고 각 문항별로 정답은 1점, 오답과 모르겠다는 0점으로 배점하여 전체응답 가운데 정답 점수를 합산하였다. Jung (2007)의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7이었다.

● 노인에 대한 태도

본 연구에서는 노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Sanders,

Montgomery, Pittman과 Balkwell (1984)의 의미분별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ing)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20개의 상반되는 형용사 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형용사 쌍에 대해 Likert 7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1점=매우 부정적, 7=매우 긍정적). 20개 문항의 평균점수를 사용하였으며, 높은 점수는 노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의미하며 3.5점 이상 4.5점 이하에 있을 때 중립적인 태도를 의미한다(Sanders et al. 1984). 연구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Cronbach's α)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6이었다.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노인학대 관련 교육경험, 정보접촉정도, 노인학대 관련 법적 지식, 노인에 대한 태도 및 노인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식정도를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등의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식의 정도 차이는 t-test 및 ANOVA로 분석하였다.
- 노인학대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심각성 인식정도와 제 변수 간의 관련성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 대상자의 특성

연구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한 결과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97.7%가 여성으로서 평균연령은 30.8세이었으며 64.5%가 미혼이었다. 대상자의 교육정도는 3년제 간호전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가 48.5%이었고, 4년제 졸업간호사는 38.2%, 석사 이상의 교육을 받은 대상자는 13.3%이었다. 평균 임상경험 기간은 약 7.4년이었으며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5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간호사의 직위는 87.4%가 일반간호사이고, 12.6%가 수간호사 이상의 관리자이었다. 주요성장지는 대도시나 중소도시에서 성장한 간호사가 83.3%이었다. 대상자의 34.7%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종교를 가진 대상자 중 기독교가 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인과의 동거경험은 연구대상자의 50.8%가 동거경험이 있다고 답하였고, 49.2%는 동거경험이 없다고 답하였다. 노인간호 수강경험은 연구대상자의 76.0%가 수강경험이 있었고, 24.0%는 수강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경험을 파악한 결과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301)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	Mean (SD)	Min	Max
Age			30.80 (8.31)	22	56
Gender	Female	294 (97.7)			
	Male	7 (2.3)			
Marital status	Married	104 (34.6)			
	Not married	194 (64.5)			
	Others†	3 (0.9)			
Education	Associate degree	146 (48.5)			
	Bachelor degree	115 (38.2)			
	Master degree	36 (11.9)			
	Doctorate degree	4 (1.4)			
Years of experience			7.36 (7.73)	0.08	35.33
Position	Staff nurse	263 (87.4)			
	Manager	38 (12.6)			
Home town (when growing up)	Large city	145 (48.5)			
	Middle sized city	104 (34.8)			
	Rural	50 (16.7)			
Religion	Buddhist	45 (15.0)			
	Protestant	90 (30.0)			
	Catholic	58 (19.3)			
	None	104 (34.7)			
	Others	3 (1.0)			
Experience of living with elders	Yes	153 (50.8)			
	No	148 (49.2)			
Experience of gerontological nursing courses	Yes	228 (76.0)			
	No	71 (24.0)			
Experience of education on elder abuse	Yes	84 (28.1)			
	No	215 (71.9)			
Exposure to elder abuse information	Never	4 (1.3)			
	Rarely	48 (16.1)			
	Moderately	153 (51.3)			
	Often	86 (28.9)			
	Very often	7 (2.4)			
Knowledge of legal issues		301	3.89 (1.80)	0.00	7.00
Attitude toward elders		301	3.59 (0.70)	1.40	5.60

* =% of valid N for each variable (Missing excluded); † =Others : widow, divorced.

28.1%이었으며, 노인학대에 대한 언론정보 접촉경험을 조사한 결과 대상자의 17.4%는 지난 1년 동안 노인학대 관련 언론정보에 대해 ‘전혀 접하지 않았거나 거의 접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51.3%는 보통으로 접하였고, 31.2%의 대상자는 ‘자주 접하였거나 매우 자주 접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대상자의 노인학대에 대한 법적 지식 정도를 파악한 결과 노인학대 관련 법적 지식 정답률은 약 56%로 7점 만점에 평균 3.89로서 7개의 문항 중 약 4문항에 대해 옳게 응답하였다. 연구대상자의 노인학대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7점 척도에서 평균 3.59로 Sanders 등(1984)이 제시한 중립범위(3.5-4.5)에 위치하였다.

노인학대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심각성 인식정도

연구대상자의 노인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식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Table 2와 같다.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재정적 학대, 성적학대, 그리고 방임을 포함한 전체적인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07로 나타나 대상자들은 노인학대 사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보통 정도의 심각한 학대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학대유형별로 보면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Perceptions of Seriousness on Elder Abuse (N=301)

Variables	Mean (SD)	Min	Max
Perception of seriousness of elder abuse	3.07 (0.05)	1.58	4.83
Physical abuse	3.48 (0.69)	1.67	5.00
Emotional abuse	2.33 (0.75)	1.00	4.67
Financial abuse	2.70 (0.90)	1.00	5.00
Sexual abuse	4.53 (0.73)	1.00	5.00
Neglect	3.17 (0.69)	1.67	5.00

성적학대(평균 4.53)에 대한 대상자의 인식정도는 가장 높게 나타나 학대유형 중 대상자가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평균 3.48), 방임(평균 3.17), 재정적 학대(평균 2.70), 정서적 학대(평균 2.33) 순으로 심각하게 인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식정도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식정도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교육수준($t=-2.032, p=.043$)에 따른 노인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식정도가 유의수준 $\alpha=.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3년제 간호대학 졸업자와 비교했을 때 4년제 간호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간호사가 노인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식점수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간호사의 직위($t=-2.275, p=.024$)에 따른 노인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식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일반간호사와 비교했을 때 수간호사 이상의 관리자들이 노인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식정도가 높았다. 노인간호 수강경험($t=-1.976, p=.049$)과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t=-2.813, p=.005$)에 따라서 노인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식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노인간호 수강경험이 있는 간호사가 수강경험이 없는 간호사에 비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높은 심각성 인식수준을 보였다. 노인학대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간호사의 노인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식수준이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 경험이 없는 간호사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식정도와 제 변수간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특성 중 연속변수로 측정된 변수들과 노인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식정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노인학대에 대한 언론정보 접촉경험($r=.171, p=.003$)과 노인에 대한 태도($r=.151, p=.009$)는 노인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식정도와 순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유의수준 $\alpha=.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특성과 노인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식정도의 관계를 파악하였으며, 궁극적으로 간호사가 노인

Table 3.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Seriousness on Elder Abuse by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301)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M (SD)	t or F	p
Gender	Female	3.07 (0.57)	0.338	.735
	Male	3.00 (0.48)		
Marital status	Married and others*	3.11 (0.62)	0.897	.371
	Never married	3.05 (0.54)		
Education	Associate degree	3.01 (0.56)	-2.032	.043
	Bachelor degree or higher†	3.13 (0.58)		
Position	Staff nurse	3.04 (0.56)	-2.275	.024
	Manager	3.30 (0.63)		
Home town (when growing up)	Large city	3.06 (0.59)	0.658	.518
	Middle sized city	3.11 (0.51)		
	Rural	3.01 (0.63)		
Religion	Religion	3.08 (0.54)	-0.347	.728
	No religion	3.06 (0.62)		
Experience of living with elders	Yes	3.06 (0.59)	-0.259	.796
	No	3.08 (0.55)		
Experience of gerontological nursing courses	Yes	3.10 (0.56)	-1.976	.049
	No	2.95 (0.58)		
Experience of education on elder abuse	Yes	3.21 (0.58)	-2.813	.005
	No	3.01 (0.51)		

*=Married, divorced, widowed; † =Bachelor degree, Master degree, Doctorate degree.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Perceptions of Seriousness on Elder Abuse and Related Variables

Variables	Age r (p)	Years of experience r (p)	Exposure to elder abuse information r (p)	Knowledge of legal issues r (p)	Attitude toward elders r (p)
Perceptions of seriousness of elder abuse	.029 (.614)	-.015 (.801)	.171 (.003)	.030 (.603)	.151 (.009)

학대 문제의 최일선에서 법적·전문가적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에서 수행되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노인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식정도는 5점 척도에 평균 3.07로 나타났다.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노인학대 인식을 조사한 Bang (2009)의 연구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를 포함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심각성 인식정도가 평균 3.61로 나타나,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지각하는 노인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식정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유형별로 학대상황에 대한 심각성 인식정도를 비교해보면, 성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 재정적 학대, 정서적 학대 순으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할머니를 설득하여 누드사진을 찍은 상황’을 성적 학대의 사례로 제시하였는데, 이 상황에 가해자의 강제적인 행위가 개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은 직접적인 폭력이 개입된 신체적 학대보다 더 심한 상황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노인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Yoo & Kim, 2004)에서와 같이 성적인 수치심을 자극하는 행위를 가장 극단적인 행위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간호사들이 성적학대 유형을 제외하고 신체적 학대를 가장 심각한 학대로 인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방임, 재정적 학대, 정서적 학대 순으로 그 심각성을 인식하였다고 하는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인식수준을 연구한 Jung (2007)과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한 Ko (2009)에게서 나온 결과와 일치한다. 이 결과는 노인학대 관련 전문가들이 노인에게 가해지는 눈에 보이는 신체적 손상, 또는 노인에게 의식주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방임 행위 등에 비해 노인을 무시하거나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등의 정서적 학대와 같이 노인부양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별로 심각하지 않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서적 학대가 다른 유형의 학대에 비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02), 부양과정에서 노인에게 가해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서적 손상은 노인 스스로가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하거나 우울증 등의 정신적 질병을 유발한다(Lee, 2005)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이 유형에 대한 학대관련 전문가들의 관심이 더욱 요구된다.

노인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식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관련 변인은 연구대상자의 교육수준, 직위, 노인간호 수강경험, 노인학대 관련 교육경험이었다. 연구대상자의 교육수준에 따라 심각성 인식에 차이를 보인 것은 교육수준에 따른 심각성 인식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선행연구들(Lee & Lee, 2007; Bang, 2009)과 다른 결과이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들의 차이점은 연구대상에 있어서 선행연구들은 노인이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4년제 간호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간호사가 3년제 간호대학 졸업자와 비교했을 때 노인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식점수가 더 높다고 나타났다. 이 점은 간호교육제도의 이원화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의 차이를 간접적으로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국내 간호대학의 노인간호학 개설현황에 대한 연구(Chon et al., 2001)를 보면 노인간호학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가 4년제 대학의 경우 80%, 3년제 대학의 58%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4년제 간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간호사들이 전반적인 노인 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되어 노인학대상황을 더 심각하게 인식한다고 사료된다.

노인간호 수강경험, 노인학대 관련 교육경험에 따라 심각성 인식에 차이를 보이는 점은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사, 간호사 등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Bang (2009)의 연구에서 노인복지학 수강 경험 및 노인학대 관련과목 수강 경험이 있는 연구대상자가 노인학대 상황을 더 심각하게 인식했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곧 노인간호학이나 노인학대 관련 교육을 받는 것이 노인학대 상황에 대한 심각성 인식도를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간호대학의 노인간호학 과정에서도 노인학대에 대한 주제를 심도있게 다루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인 간호사가 노인학대에 대하여 적절한 판단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국외의 연구 사례를 보더라도 학대관련 교육 경험은 학대사례 판단과정에 중요한 예측 요인이었으며(McCredie et al., 2000; Tilden et al., 1994), 종사하고 있는 기관에서 학대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대 관련 실무자들의 경우 의심되는 학대 상황을 정확하게 판정하여 사례를 효과적으로 중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Tilden et al., 1994). Allan (2002)의 경우에는 간호사에게도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노인학대 관련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노인학대 예방 측면에서 중요한 방안이라고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도 간호사가 학대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고 학대관련 전문가로 자리매김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에게 의무적으로 학대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학대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응급실, 방문간호, 가정간호 등에 종사하는 간호사들에게 이와 같은 교육이 더욱 요구된다(Song, 2007).

직위에 따라라도 심각성 인식정도에 차이를 보였는데, 수간호사 이상의 관리자가 일반간호사와 비교했을 때 노인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식정도가 높았다.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직업군의 신고의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연구대상자의 직위는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고(Bang, 2009; Jung, 2007), 직업군에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종사자가 의료인보다 노인학대를 더 심각하게 인식한다고 보고하였다(Bang, 2009). Jung과 Ju (2009)의 연구는 간호대상자의 인권의 측면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유사성을 지니는데, 환자 정보 보호행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간호관리자가 일반간호사보다 그 인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관리자의 직위에 따라 역할과 책임감이 증가하며, 이들에게 관련 교육이 제공됨으로써 간호대상자의 인권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아진다(Jung & Ju, 2009)는 점은, 간호사의 직위에 따라 심각성 인식정도의 차이를 논의한 본 연구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간호사의 경우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고 역할에 따른 책임감이 증가할수록 노인학대 상황을 더 잘 판단한다고 할 수 있다.

간호사의 노인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식정도는 정보접촉 정도 및 노인에 대한 태도와 유의한 수준에서 순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먼저, 노인학대와 관련된 언론 매체의 정보에 접촉하는 정도와 노인학대의 심각성 인식 정도 사이에 유의한 순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점은 대중매체를 통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간접적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래에 방송에서 공익성 캠페인과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하는 교육적 오락물(entertainment-education)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Lee & Choi, 2008). 노인학대와 같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들에 대하여 일반인들의 정보접촉 기회가 늘어나고(Hong, 2006), 미디어에 의한 간접교육의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노인학대 관련 전문가인 간호사들은 일반인들과는 차별화된 전문적 지식을 축적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 매체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노인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식 수준이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이는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전문가일수록 의심되는 학대상황을 학대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Bergeron, 1999)는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이는 간호사들이 노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학대 상황을 간과하지 않고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시기에 대처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궁극적으로 노인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는 노인학대 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치므로 노인에 대한 간호사들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유지하기 위한 병원시스템 내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간호사들이 노인에 대한 지식을 높이고, 노인의 신체 변화에 관한 유사체형의 교육기회를 갖도록 하는 등, 이들이 노인을 깊이 이해하여 노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Yu, Kim, & Lee, 200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사의 특성과 노인학대에 대한 간호사의 심각성 인식정도의 관계를 분석하여 학대관련 전문가로서, 신고 의무자로서 간호사들이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효과적인 중재를 수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서울에 위치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301명의 간호사이었으며 자료수집은 2008년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편의 표집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노인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식은 Moon과 Williams (1993)가 개발한 13 개의 노인학대 사례 중 Yoo와 Kim (2004)이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게 수정, 보완한 12사례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술적 통계방법,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식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07로 나타났다. 학대유형별로 보면 성적학대(평균 4.53)에 대한 대상자의 인식정도는 가장 높게 나타나났으며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평균 3.48), 방임(평균3.17), 재정적 학대(평균 2.70), 정서적 학대(평균 2.33) 순으로 심각하게 인식하였다.

둘째, 노인학대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심각성 인식은 4년제 간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간호사군($t=-2.032, p=.043$), 간호관리자군($t=2.275, p=.024$), 노인간호를 수강한 경험이 있는 군($t=-1.976, p=.049$),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군($t=-2.813, p=.005$)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마지막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언론정보 접촉경험($r=.171, p=.003$)과 노인에 대한 태도($r=.151, p=.009$)는 노인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식 정도와 유의한 순상관관계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 노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지식이나 학대관련 교육기회 제공은 간호사의 노인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식정도를 높인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따라서 간호사를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이해와 노인학대의 본질 및 특성을 포함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인학대 문제 해결에 있어서 법적·전문가적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노인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식 정도와 관련된 간호사의 특성을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무작위로 추출된 전국 규모의 연구 조사가 필요하다.
- 노인이 학대를 받는 잠재적 상황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지역사회 간호사나 피해학대 노인을 발견할 수 있는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식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 간호사들은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6항에 규정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간호사의 신고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연구들이 요구된다.

- 간호대학의 노인간호학 과정에서 노인학대에 대한 주제를 심도있게 다루어 간호학생들이 미래의 노인학대 관련 실무 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야한다.
- 간호사들에게 의무적으로 학대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고, 간호사의 노인학대 관련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토타입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References

- Allan, M. A. (2002). Elder abuse: a challenge for home care nurses. *Home Health Care Nurse*, 20(5), 323-330.
- Bang, H. M. (2009).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erception of elder abuse: Focused on mandatory reporters.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cience*, 13(1), 211-234.
- Bergeron, L. R. (1999). Decision-making and adult protective services workers: Identifying critical factors.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103(3/4), 87-113.
- Choi, N. G., & Mayer, J. (2000). Elder abuse, neglect, and exploitation: Risk factors and prevention strategies.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33(2), 5-25.
- Chon, S. J., Kong, E. S., Kim, G. B., Kim, N. C., Kim, C. H., Kim, C. K., et al. (2001). A study of gerontological nursing curriculum.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1(5), 808-817.
- Fishbein, M., &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ss: Addison-Wesley Pub. Co.
- Hong, J. (2006). A scientific approach to the design of public communication campaigns: Integration and utilization of theories of media effects, persuasion and behavior change. *Korean Journal of Consumer and Advertising Psychology*, 7(2), 249-276.
- Jo, A. J. (2008). Elderly abuse and what to do about it.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143, 16-29.
- Jung, S. K. (2007). *A research for reporter recognition level of elder abuse of responsible person and countermove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Silla University, Busan.
- Jung, S. Y., & Ju, H. O. (2009). Perception and performance of emergency-room nurse's protection behavior for the consumer health information.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5(3), 403-414.
- Killick, C., & Taylor, B. J. (2009). Professional decision making on elder abuse: systematic narrative review.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21(3), 211-238.
- Kim, M. H., Kwon, K. J., Lim, Y. O., & Lee, Y. H. (2006). Screening scale for elder abuse.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6(4), 819-842.
- Ko, C. M. (2009). A study of nurses' perceptions on elder abuse. *Sungshin Journal of Health Science*, 1(1), 47-57.
-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6). Population Projection for Korea. Retrieved January 20, 2010 from Web site: http://www.kosis.kr/OLAP/Analysis/stat_OLAP.jsp
- Lee, B., & Choi, M. (2008). Exploring the persuasive effect of entertainment-education as a new public campaign: The influences of television program on attitudes and behavior toward organ donation.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19(1), 75-97.
- Lee, I. S., & Lee, Y. H. (2000). Gender differences on perceiving elderly abuse.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10, 165-184.
- Lee, K. J., & Lee, H. J. (2007). Factors affecting the perception of the elderly toward elder abuse.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38, 209-230.
- Lee, Y. H. (2005). *Elder abuse, risk factors and consequences*. Kyungi: Korean Studies Information Co. Ltd.
- Mandiracioglu, A., Govsa, F., Celikli, S., & Yildirim, G. O. (2006). Emergency health care personnel's knowledge and experience of elder abuse in Izmir. *Archives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43(2), 267-276.
- McCredie, C., Bennett, G., Gilthorpe, M. S., Houghton, G., & Tinker, A. (2000). Elder abuse: do general practitioners know or care?. *Journal of the Royal Society of Medicine*, 93(2), 67-71.
-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2009). *A report of elder abuse cases*. Seoul: Korea Elder Protection Agency.
- Moon, A., & Williams O. (1993). Perceptions of elder abuse and help-seeking patterns among African-American, Caucasian American, and Korean-American elderly women. *The Gerontologist*, 33(3), 386-395.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02). *A study of elder abuse in communities*. Seoul: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Oswald, R. A., Jogerst, G. J., Daly, J. M., & Bentler, S. E. (2005). Iowa family physician's reporting of elder abuse.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16(2), 75-88.
- Sanders, G. F., Montgomery, J. E., Pittman, J. F., & Balkwell, C. (1984). Youth'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3(1), 59-70.
- Seo, Y. (2000). A study on the social workers' knowledge and the condition of elder abuse.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7, 29-73.
- Song, M. S. (2007). Elderly abuse in domestic settings: Nursing perspective. *Korean Journal of Nursing Query*, 16(1), 78-101.
- Tilden, V. P., Schmidt, T. A., Limandri, B. J., Chiodo, G. T., Garland, M. J., & Loveless, P. A. (1994). Factors that influence clinicians'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family violence.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4(4), 628-633.
- Yoo, S. H., & Kim, C. S. (2004). *A study of old persons' subjective perceptions on elder abuse*. In *Korean Institute of Gerontology, A study of current state and a countermeasure on elder abuse* (pp. 9-39). Seoul: Korean

Institute of Gerontology.
Yu, S. J., Kim, S. M., & Lee, Y. J. (2004). The effect of

senior simulation on nurses' attitude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4(6), 974-982.

A Study of Nurses' Characteristics and their Perception of Seriousness of Elder Abuse

Ko, Chung Mee¹⁾

1)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es' characteristics and perception of seriousness of elder abuse. **Method:** A cross-sectional survey design was used to describe the perception of elder abuse by 301 nurses. Data were collected by convenience sampling. The research instruments utilized in this study were 12 scenarios adapted by Yoo & Kim from the 13 scenarios to measure the perception of elder abuse developed by Moon and Williams (1993), a seven item questionnaires related to elder abuse law, and a Semantic Differential Scaling to measure attitudes toward elderly people.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Results:** The mean score for perceptions of elder abuse was 3.07. Among the types of abuse, sexual abuse was perceived as the most severe type of abuse followed by physical abuse, neglect, financial abuse, and emotional abuse in that order. Education, job position, experience of gerontological nursing course, and education on elder abuse, exposure to elder abuse information, and attitudes toward elder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perception of seriousness on elder abuse.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provision of elder abuse education is needed for nurses, to enable them to identify elder abuse and address their legal and professional responsibilities.

Key words : Elder Abuse, Perceptions, Nurses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o, Chung Mee
College of Nurs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249-1, Dongsun dong 3-ga, Seongbuk-gu, Seoul, 136-742, Korea.
Tel: 82-2-920-7725 Fax: 82-2-920-2091 E-mail: cmklee@sungshin.ac.kr